

범인(凡人)의 변호사시험 합격수기



이 성 우

- 해운대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경영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I. 서론

저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봤으나 수능에서 뛰어난 성적을 받지도 못했고, 소위 ‘명문대’라 불리는 대학교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로스쿨에서도 나름 열심히 해봤으나 ‘검클빅(검찰·로클릭·빅펌)’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특히 ‘법학’ 공부는 정말 꾸준히 성실하게 해왔습니다. 고등학생 때 사회탐구영역 ‘법과사회’ 과목으로 법학에 입문했고, 대학생 때는 전공자로서, 로스쿨 때는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해서 성실하게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수능에서 ‘법과사회’ 과목은 1등급을 받았고, 대학교는 학점 평점 4점대로 졸업하였으며, 변호사시험은 1000점이 넘는 점수를 받아 나름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자랑을 하고자 말쑥드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제가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이지만 변호사시험 합격은 충분히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검증된 인재로서 로스쿨에 입학한 이상 로스쿨 3년간 열심히 공부한다면 무리 없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 저도 1000점을 넘겼으니, 저보다 똑똑하신 여러분들은

분명 무탈하게 합격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II. 로스쿨 생활에 관하여

1. 로스쿨 입학 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점으로, 저는 법학을 전공했지만 아무런 베이스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공자라고 해봤자 기억나는 법리 하나 없었고, 사례형 답안지 쓰는 방법도 몰랐으며, 단지 법학용어를 한 번쯤 들어봐서 어색하지 않다는 점 외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흔히 썬비법, 비법, 전공자 구분을 하곤 하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무 실익 없는 구분이라고 생각합니다(단, 사법시험을 준비했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로스쿨 입학생들은 로스쿨 입학 전까지 선행학습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로스쿨 입학 전까지 민법 인강 1회독을 목표로 잡았으나, 목표했던 분량의 반도 못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반드시 선행학습을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선행학습 없이는 로스쿨 1학년 1학기가 심각하게 버거울 수 있습니다. 로스쿨 1학년 1학기는 학습량도 많고 시행착오를 겪는 시기이기 때문에 미리 적응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건국대학교는 로스쿨 입학 전 약2주간 프리(pre-)로스쿨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프리로스쿨 과정은 사실상 3학년 1학기 과목을 2주 당겨서 시작하는 것으로서, 친절하게 입문자를 위해 설명해주는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선행학습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으로 프리로스쿨에 대한 설명은 마치했습니다.

2. 로스쿨 1학년

건국대학교 로스쿨은 1학년 1학기 과정이 매우 힘듭니다. 특히 1학년 1학기 때 ‘형법’이라는 한 과목으로 중간고사 때까지 형법총론, 기말고사 때까지 형법각론을 포섭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민법, 헌법 과목을 함께 병행하기 때문에 학습량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처음 공부해야 할 범위를 들었을 때에는 막막하기만 한 기분이었는데, 동기들이 묵묵히 꾸역꾸역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저절로 따라서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공부량을 말씀드리면, 저는 대략 오전 8~9시경부터 오후 10~11시경까지 공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주말 하루 정도는 쉬었습니다. 하루 종일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공부만 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하루 내내 공부만 하는 것은 1학년 때 뿐만이 아니고 3년 내내 같았습니다.

당시 힘들었던 점으로, 중간고사 전까지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잘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없어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초조하고 불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건국대학교 로스쿨 정원 40명 중 20명 내외만 초시에 합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50% 안에 들 수 있을까!” 하며 걱정했던 것이었습니다.

중간고사 때 일부 과목의 성적을 받아보니 대략 10등 중반의 등수였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 공부했는데 고작 15등 정도의 등수였던 것이 실망스러웠고, 앞으로도 이럴 것만 같아 좌절스러웠습니다. 결국 1학년 1학기 종합 성적도 40명중 15등 정도였고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공부했는데 겨우겨우 합격에 걸칠 등수라는 것이 속상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렇게 열심히 한다면 합격권에 들 수 있다는 것이었고, 저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안정적인 합격권에 들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1학년 1학기 직후 여름방학은 계획에 비해서는 아쉽게 보였습니다. 나름 공부를 해본다고 학교에 나갔지만 몰입도 있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는 1학년 2학기 과목 선행학습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1학년 2학기 때는 혹시 내가 '검클빅'이 될 수 있을까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에 더 착실하게 공부해보았습니다. 공부시간으로는 오전 9-10시부터 그날 밤 늦게 2시쯤까지 매일매일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 후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잠자리에 들면 새벽 3시쯤은 되었고, 주말에도 거의 쉬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1학년 2학기 종합 성적은 12등 정도에 그쳤습니다. '검클빅'에 도전하려면 적어도 10등 안에는 들어야 한다고 여기며 공부했는데, 제 수준은 한참 모자랐던 것입니다. 12등이라는 등수는 변호사시험은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검클빅'은 될 수 없는 애매한 정도였기에 더욱 공부 의욕을 떨어뜨리는 성격이었습니다. 결국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3. 로스쿨 2학년

로스쿨 2학년은 아무래도 조금 해이해지는 시기입니다. 로스쿨 입학 후 1년 동안 치열하게 공부했는데도 아직 2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변호사시험은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검클빅

은 되지 못하는 애매한 위치'에 있었기에 더욱 공부할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학생회 부회장과 로스쿨 농구부 주장을 겸임하면서 공부에 더욱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로 인해 로스쿨 2학년 1학기에는 매우 처참한 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등수도 확인해보지 않았는데, 아마 1학년 때에 비하여 10등 이상 떨어졌을 것입니다.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확실히 다른 때보다 치열하지 못했습니다. 1학년을 마치고 '변호사시험은 문제없이 합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로스쿨에서 최상위권의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언제든지 합격권과 불합격권을 넘나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2학년 1학기 성적 폭락으로 인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이러한 실수를 통해 남은 세 학기는 방심하지 않고 치열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2학년 때 방심하는 시기 없이 꾸준히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로스쿨 3학년

로스쿨 3학년 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3학년 과정은 모두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년 내내 학교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기관리가 되는 학생들에게는 이득이었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이 되었습니다.

저는 코로나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는 쪽이 되고자 했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매일매일 꾸

준히 공부하고자 동기들 세 명 정도를 모아 출석, 퇴장 인증 스티드를 하였고, 매일 8시 출석하여 10시 퇴장하는 일정을 반복하였습니다. 일주일에 6일 정도 공부하였고, 순 공부시간을 체크해 보니 일주일 40~50시간 정도 되었습니다. 순 공부시간이 많이 적히지는 않았지만,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1년 내내 꾸준하게 공부하며 계획을 철저히 지켰던 점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3학년 때 치르는 세 번의 모의시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의시험 성적은 변호사시험 성적과 대체로 비슷하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을 판단하기 좋은 지표가 됩니다. 저는 6월 모의시험을 변호사시험과 비슷한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6월 모의시험을 철저히 준비했고, 공법 과목까지도 모두 대비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두루두루 부족한 부분 없이 공부한 덕분인지 6월 모의시험에서 선택형(객관식)은 105개를 맞았고 전체 성적 교내 7등을 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성적이었으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합격권에 들어가는 등수였기 때문에 안심되었습니다. 6월 모의시험 성적이 안정적이어서 남은 기간도 커다란 스트레스 없이 공부할 수 있었고, 8월, 10월 모의시험에서도 10등 정도의 성적을 받으며 꼭 합격권의 점수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3학년 때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은 공법을 꽤 일찍(2학년 겨울방학 때)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학교 분위기는 모르겠으나, 저희 학교는 3학년 2학기 때 공법을 시작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6월 모의시험 이후에는 8월, 10월 모의시험도 준비해야 하고, 기록형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최신판례 강의도 들어야 하고,

선택법 공부도 해야 하는 등 계속해서 새롭게 할 공부가 많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상법(+어음수표법), 친족상속법 공부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공부까지 하려면 정말 시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공법을 늦게 시작하면 공부 페이스가 잡히지 않고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기 중에도 공법 공부를 늦게 시작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정리하면, 공법이 민사법, 형사법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6월 모의고사 전에 대비해두면 나중에 훨씬 수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기 중에는 바쁘니 2학년 2학기 후 겨울방학 때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최신판례 공부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변호사시험은 최신판례를 묻는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최신판례를 똑바로 공부하지 않으면 합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8월 ~ 11월에 걸쳐 틈틈이 인강을 들으며 공부했는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공부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최신판례 대비는 1, 2학년 때 미리 조금씩 하기보다는 3학년 말에 한꺼번에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최신판례'라는 인식을 갖고 공부를 하면 해당 판례들을 유의하여 보게 되고, 시험을 볼 때에도 최신판례를 묻는 문제를 보면 '아 이거 최판 문제구나' 하면서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은 5일에 걸쳐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충분한 숙면과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곤해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고, 못 본 과목이 있더라

도 너무 좌절하지 말고 다음 일정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들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막상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잘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저도 첫날 공법 기록형 시험을 망쳐서 저녁에 속상해하며 시간을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잘못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호사시험은 첫 날이 정말 힘듭니다. 공법 과목을 마치고 저녁을 먹고 나면 이미 늦은 저녁이 됩니다. 저처럼 공법을 마쳐 좌절하며 후회하는 시간을 보내면 더더욱 늦은 저녁이 됩니다. 그때부터 형사법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데, 12시 정도에는 자야 하므로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형사법 공부를 충분히 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변호사시험 3일 전쯤 형사소송법 공부를 미리 해두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는데, 괜찮은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모의시험을 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실 텐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 각자 첫날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미리 전략을 세워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 시험에 관해서 특별히 더 말씀드릴 만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시험 때 소리에든 둔감하고 책상 크기 등 외부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라 그러한 부분에서 팁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변호사시험에서 1010.13점을 받았고, 등수는 648등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 치고는 아주 잘 봤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제를 알아 '킴클빅'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변호사시험 고득점만을 목표로 했던 전략이 먹혔던 것 같고, 스스로 몇몇하게 여겨질 만큼 꾸준히 성실하게 공부한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Ⅲ. 공부방법론

공부방법론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을 다니면서 동기들과 많이 이야기 해 봤지만, 유일한 정답은 '많이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결국 본인 스타일에 잘 맞고 '점수가 잘 나온다면' 옳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공부방법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으나, 점수가 괜찮게 나온다면 굳이 더 나은 공부방법을 찾겠다고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기본서(강사저)를 주구장창 읽는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보던 기본서를 변호사시험 전날까지 봤습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내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알면 모든 문제를 응용해서 풀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시험 때까지 모든 기본서를 스캔하듯 외워버리자는 각오로 반복해서 읽었고, 각 과목을 10회독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고 추천할 만한 방법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서를 읽으면서 뼈대를 다진 후 문제를 풀면서 살을 붙이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 선택형 대비

저는 문제집을 많이 보지 않았지만, 10월 모의시험 이후 OX 문제집을 한바퀴 돌리며 공부했던 것은 객관식 점수 향상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선택형 문제집으로는 OX 문제집이 좋은 것 같습니다. OX 문제집은 일반적인 선택형 문제집보다 더 빨리 볼 수 있고, OX 문제집만으로도 충분이 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2. 사례형 대비

최소한 모의시험(6, 8, 10월) 및 변호사시험 직전 5개년 정도는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1년 4회 × 5개년 = 20회분은 반드시 풀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 추세도 알 수 있고 문제를 푸는 감도 생깁니다. 변호사시험 사례형은 시간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쓰고 싶은 내용을 다 쓸 수 없고, 학설을 알면서도 쓰지 않거나 아주 간략히만 언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많이 풀면서 시간 조절 및 분량 조절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3. 기록형 대비

보통 3학년 1학기 때 준비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기록형은 실제로 써보는 것도 꽤 중요하기 때문에 스터디를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록형을 쓰는 것은 고된 일이기 때문에 스터디를 하지 않으면 써보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큼니다.

기록형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인강을 들으며 요령을 터득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4. 선택법 공부

저는 국제거래법을 선택했습니다. 인강을 듣고 기본서를 읽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8월 모의시험 이후 간단히 1회독 정도만 하고 10월 모의시험 이후 조금 더 공부하는 식으로 대비했습니다. 공부한 시간을 다 합하면 10일~14일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점수는 86.13점 정도를 받았으니 적당히 잘 대비했던 것 같습니다.

국제거래법은 공부할 양은 적으나, 시험 당일에 조문을 잘못 타면 매우 낮은 점수를 받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선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교재 선택

헌법-강성민, 행정법-강성민, 형법-이용배, 형소법-신광은, 민법-윤동환, 민소법-박승수, 상법-장원석을 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은 만족스러웠고, 형법, 형소법은 보통이었고, 민소법은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것을 특별히 추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자기 눈에 잘 들어오는 책을 잘 골라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IV. 결 어

로스쿨은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든 곳입니다. 저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스스로 초라해지는 기분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뎌내며 끈기 있게 열심히 한 결과, 법인에 불과한 저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현재는 그토록 원했던 변호사가 되어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적절한 공부 전략을 바탕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스스로 떳떳한 수험생활 보내시고, 김클빅이든 변호사시험 합격이든 혹은 다른 시험 합격이든, 원하는 결과 단번에 얻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